

잡아함 116. 아진경

날짜: 9월 26th, 2024

출처: <http://www.dhamma.kr/wp/?p=17745>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마구라산에 계시었다. 때에 라다라는 시자 비구가 있었다. 그 때에 집을 나온 많은 외도들은 라다에게 가서 서로 인사한 뒤에 한 쪽에 물러앉아 라다에게 물었다.

“너는 무슨 까닭으로 집을 나와 사문 고오타마 밑에서 범행을 닦는가.”

라다는 대답하였다.

“물질에서 <나>와 <내 것>을 보면 아만의 사자는 나를 결박할 것이요, 만일 그것이 없어지면 욕심을 떠나 마음은 지극히 고요해질 것이다. 느낌·생각·지어감·의식에서 <나>와 <내 것>을 보면 아만의 사자는 나를 결박한다. 만일 그것이 없어지면 욕심을 떠나 마음은 고요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집을 나와 세존 밑에서 범행을 닦는 것이다.”

모든 집을 나온 외도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꾸짖고 떠나갔다. 라다 비구는 해질녘에 선정에서 깨어나 부처님께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배하고 물러나 한 쪽에 앉아 위의 일을 자세히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한 말이 세존을 비방하지나 않았나이까. 다른 사람이 와서 힐난하고 꾸짖을 때에 지지나 않겠나이까. 말답게 말하지 않고 법답게 말하지 않았으며 법과 법을 따르는 말이 아니지나 않나이까.”

부처님께서는 라다에게 말씀하시었다.

“너는 진실로 말하였다. 여래를 비방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힐난하고 꾸짖을 때에 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은 말답게 말하였고 법답게 말하였으며 법과 법을 따르는 말이었느니라. 왜 그러냐 하면, 물질에서 <나>와 <내 것>을 보면 아만의 사자는 나를 결박할 것이요 만일 그것이 없어지면 욕심을 떠나 마음은 지극히 고요해질 것이다. 느낌·생각·지어감·의식에

서 <나>와 <내 것>을 보면 아만의 사자는 나를 결박할 것이요, 만일 그것이 없어지면 욕심을 여의고 마음은 지극히 고요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집을 나와 여래 밑에서 범행을 닦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라다 비구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밭들어 행하였다.

본 문서는 dhamma.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